

B4 2023년 6월 25일

소개

1.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저는 청년 목사이자 청년 목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 [시리즈: 기적] 지난 주에 목사님이 기적에 대한 새로운 교육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정직하다면 때때로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오늘날 당신이 어디에 있든, 기적을 믿는 사람이든

회의론자여, 당신에 대한 나의 바람은 당신이 현실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현실에 침입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보목사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기적

-오늘 아침, 우리는 만족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 교회 일이 처음이라면 재미있는 예수 이야기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이것이 배고픈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욕구

1. 하지만 그것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반성해 보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당신이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꿈의 직업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휴가

-이상적인 급여에 도달

-고등학교 - 완벽한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는것

이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멈출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철학의 욕망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따르면 – 오스트리아 신경학자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과장하기 어렵습니다 - Freud에 따르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
매우 간단합니다.

-프로이트는 낭만적인 육체적 사랑의 만족스러운 즐거움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행복의 만족을 추구하고...

-우리 삶의 중심 추구.

-즉, 섹스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성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이든.

이자형. 친구 여러분, 섹스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집착의 대부분은
프로이트의 섹스 이론은 행복과 만족의 열쇠입니다.

문제: 만족하지 못한 내적 갈망의 현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섹스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문제는 섹스가 그 순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합니다.

-매력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성적 만족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일단 성취되면
궁극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어공주가 최근 극장에 왔는데...아리엘이 나오는 노래가 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한탄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

-여기에 "저 밖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어공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 더 원합니다 –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남성.

-그러나 이야기는 너무 빨리 끝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기도 전에 그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이자형.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이 영혼의 더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꿈의 직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꿈의 휴가는 완벽한 휴가가 아니었다

-돈은 만족하지 않는다

-시인 윌리스 스티븐스(Wallace Stevens)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출 때,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한 내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순간에 충족될 수 있지만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완전한 만족을 갈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 휴가, 관계.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저주 때문이다

1. 이 만족의 문제, 또는 더 나아가 만족의 부족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모두 이것을 직면합니다.

2. 이 문제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온 때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3.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 인류는 그들의 눈에 만족을 찾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4. 이로 인해 죄와 악의 저주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인간의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5. 창세기 3:17-19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저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빵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빵은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일합니다. 순간적인 만족과 자양분을 더 얻으십시오.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기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흠 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우리 삶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매우 정직한 구약 지혜서인 전도서에 나오는 교사의 언어로,

"당신은 모든 권력, 돈, 소유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허무함의 가혹한 현실. 당신의 삶은 단지 안개, 수증기에 불과합니다."

성경

1. 이제 우리는 우울해졌으니 요한복음을 봅시다.

2. 요한복음 6:1-15 -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이백 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다섯 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요한복음 6:1-15)

-이것은 배고픔을 채우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가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군중은 먹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또 빵 마술!

-시간.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바로 왕으로 삼고 싶어하기 때문에 군중에게서 살금살금 물러나십니다.

-그 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 없이 배에 있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시니

멋진 물 위를 걷는 것 (또 다른 기적이지만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4. [요한복음 6:23-26]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우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23-26)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배고파서 나를 찾는구나

-사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음식

1. 성서 학자 엘리스 D. 마이어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2. 치료 능력과 음식 제공 능력은 두 가지 특성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이상적인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

알리시아 D. 마이어스

3. 그들은 “당신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의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

-그러므로 그들이 두 번째로 갈망하는 것은 권력이다.

-그들은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15절).

-그리고 맞춰보세요...그가 왕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압제자,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찾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더 많은 음식은 지속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27)

-이것은 인간의 리듬에 어긋나기 때문에 흥미 롭습니다.

앞서 읽은 창세기 3장 –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계속 일한다
죽는 날까지 그것을 위해.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에 침입한 새로운 현실이 있어.

-하늘이 지구를 침공.

-인간이 되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하지 않는 빵을 위해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절대 상하지 않는 이 빵이 그들의 호기심을 엿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6:28-31, NIV)

- 다시 말해, 그들은 "오 알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을 것입니다...만약 당신이 무료로 한다면 또 음식이야!"

나 .[중학생에게 믿게 하기 위해 도넛 6개를 준 이야기]

-믿기 위해 그는 무료 도넛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기" 전에 더 많은 공짜 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광야 이야기의 빵을 요약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방황하다

식량이 없는 황야]

-그때도 광야에서 배고픔을 달래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다가올 더 큰 기적을 가리키며...

신명기 8:2-3 -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빵을 제공하신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사십 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인류가 모든 것을 수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삶의 날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저주를 뒤집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저주를 되돌리고 모든 것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사물 - 예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섰다.

-세례를 받은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원수에게 시험을 받는 날입니다.

에프. 다만 그들과 달리 그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였다.

-그가 금식하자 마귀가 빵을 만들도록 그를 유혹했습니다.

바위와 예수는 신명기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
말한다

2. (누가복음 4:4)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광야에서 음식을 금함으로써 예수님은
만족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모델링
빵보다 더 위대한 것.

-왜냐하면 인류는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빵은 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가치가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빵은
식사의 중심 (보통 우리와 달리
고기 또는 - 내 비건 친구를 위해 - 렌즈 콩)

-그 당시 빵은 생명과 힘과생계.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

3.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알면 예수께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한복음 6:32-34)

-그것은 논리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제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간의 배고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27b-35, NIV)*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얻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우리의 욕망처럼) 음식과 권력에 잘못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사모함을 만족케 하는 참된 양식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정말 만족합니다.

명제:

1. 교회, 육신의 굶주림은 우리 밖에서 육신의 음식으로 채우는 것과 같이...

2.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더 깊은 배고픔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실함으로써 내면의 만족을 찾으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또는 진정한 만족은 섹스, 편안함 또는 성공에서 외부적으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배고픔의 만족이 참된 빵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빵, 하늘에서.

-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만족을 찾는 하늘의 빵이십니다.

- 군중은 빵 다섯 개로 배고픔을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빵과 물고기 두 마리.

-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으로 만족을 찾는 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더 큰 기적.

-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영혼의 굶주림이 참된 빵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천국.

이 만족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1. B4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

2. 이 만족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3. 이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4. 군중이 놓쳤을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참된 만족을 주는 생명의 떡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희망 - 부분적으로 현재의 만족, 완전한 미래의 만족

1. 현재 부분적으로 만족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생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찾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완전한 안식이나 진정한 행복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 노리치의 줄리안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깊은 갈망은 아직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분적인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험은 다가올 완전한 만족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 언젠가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CS Lewis 명언 -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할 수 없는 욕망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가장 유력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지상의 쾌락이 그것을 만족시킨다고 그것이 우주가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속적 쾌락은 결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CS 루이스(순전한 기독교)

-Lewis에 따르면 이러한 갈망은 "달콤한 아픔"이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인의 결합에 대한 기대와 거의 같았습니다 ...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1.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은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의 초대는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에 대한 궁극적인 만족을 찾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마태복음 11장 28-29절에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당신의 영혼을 위해.”

고대 기독교의 금식 관행은 이에 대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세트 음식

기간 - 기도에 더 집중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관계를 끊고 단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 깊은 만족을 찾으십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 소셜 미디어 또는 TV가 될 수 있습니다 .

1.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초대는 궁극적인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2. 그리고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방향 전환함으로써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음식의 순간적인 만족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만족.

-당신이 금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때, 이것은

그 소망을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내 만족을 찾으십시오.”

-음식과 세상의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니니라

복음:

1.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3.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 이로 인해 창세기 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저주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5. 그리고 우리 내면이나 이 세상 그 무엇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6.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기적으로 만족하게 하시려고 생명의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8.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이 만족의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까?

-음식의 본질은 만족을 주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내부 갈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먹는 식물도 우리를 먹이기 위해 죽습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6:33)

9. [부서진 빵]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 “그가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군중.”

-다른 복음서에는 빵을 들고 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빵을 떼실 때 예수님은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약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난 티모시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빵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빵은

부서진 사람.” - 티모시 켈러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들도 살아나서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